하나 되기에서 '둘'의 사랑으로:

둘의 무대에서 진리를 구축하는 사랑

알랭 바디우의 사랑 철학

양운덕

* 사랑은 '하나 되기'인가?

사랑하는 이들이 마지막 장면에서 결혼해서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결말을 온전한 끝이라고 믿는 이는 많지 않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백설공주와 결혼한 왕자는? 귀향한 오뒷세우스와 페넬로페는 못 다한 사랑을 지속시키며 삶의 마지막까지 온전한 행복을 누렸을까? 이 도령과 춘향의 결혼 생활은?

이런 이야기들의 바탕에는 사랑이 '하나 되기'라는 사고가 깔려있다. 서로 다른 취향, 습관, 성장 환경, 문화, 세계관을 지닌, 이질적인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사랑 안에서 두 가지 상이하고 이질적인 것들을 녹여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두 생각을 어떻게 합하고, 두 습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두 세계관은 어떻게 종합되거나 승화될 수 있을까?

관계의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칸트의 관계 범주를 참고해서 가능한 세 경우를 보자. 둘 가운데 하나가 원인이 되고 다른 것이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한쪽이 실체로서 본질적 지위에 있고 다른 쪽이 있으나마나한 것인 경우가 있다. 이런 두 경우는 어쨌든 한 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사실상 부정한다.

바람직한 것은 양자가 서로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경우일 것이다. 상이한 두 존재가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장점을 통해서 자기를 보충하려는 조화와

화해의 틀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제안을 과연 어느 쪽에서 먼저 시도해야 할까? (먼저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으면 무시당하거나 걷어차이지 않을까?) 상호인정을 위해서 각자의 자기부정을 통한 상호긍정이 요구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사랑의 이름으로 양자를 화해시키고 더 큰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상호작용모델은 (수많은 이들이 경악하듯이) 칸트가 결혼을 설명할 때 지적하는 것처럼 서로의 성적 기관을 상호 공유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상호성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두 성은 조화와 타협의 그늘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자가 아니라 '다수성'을 철학적 출발점으로 삼는 알랭 바디우Alain Badiou는 사랑에서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에서 비롯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각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여긴다. 누구도 사랑을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교환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처럼 계산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랑하면서 시련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랑은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경험을 만드는 지점이고, 차이의 관점을 시험하는 사고로 이끈다.

플라톤은 사랑이 보편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실현가능한 보편성의 개인적 경험이자 철학적으로 근본적이라고 보았다. 바디우는 플라톤이 사랑의 도약에 보편의 씨앗이 있다고 한 점, 사랑의 경험이 이데아를 향한 도약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사랑하는 자는 연인의 아름다운 몸을 보면서 감탄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고한다. 그래서 사랑에는 우연의 순전한 특수성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요소로 이행하는 경험이 있다.(Badiou, 2009, 19-20/26-7)1)

* 하나에서 둘로 되는 사랑

바디우는 사랑을 (정치, 과학, 예술을 비롯한) 진리 산출 절차들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그는 사랑이 '하나/一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사랑에 관한 기존 관점들을 비판한다.

그는 융합적 사랑, 희생적 사랑, '상부구조적' 사랑에 의문을 제기한다.(E 255-6/338-9)

융합적fusionnelle 사랑은 사랑을 황홀경의 하나로 간주한다. 황홀한 하나 됨을 추구하는 사랑은 다수를 제거함으로써 둘 너머에 있는 상태를 설정한다. 사랑에 관한 낭만적 개념은 사랑을 황홀한 만남으로 소진시킨다. 곧 사랑이 "마술적인 외재성의 한 순간에 불타고 소진되고 소비"(E 33/41)된다고 본다. 기적적인 것, 완전히 녹아버린 하나의 만남이 도래한다. 낭만적 신화에서 이런 융합의 지점은 흔히 죽음으로 귀결된다. 이런 틀에서 사랑과 죽음은 깊은 관련을 맺는다.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경우, 만남의 예외적이고 형언할 수 없는 순간에 사랑을 소진한 까닭에 더 이상 남아있는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E 34/42)

'희생적oblative 사랑'은 동일자를 타자의 제단에 바치는 관점에 선다. 바디우는 사랑을 '헌신적인' 경험, 자기를 최종적으로 전체-타자에 결부시키는 것,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망각하는 경험으로 보지 않는다. (괴테가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를 고양시킨다고 했지만) 사랑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지 않으며 그 나머지 것들을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지도 않는다. (E 28/34)

'상부구조적superstructurelle 사랑'은 사랑을 성적 욕망을 가리거나 장식하는 환상으로 여긴다. 염세적인 프랑스 모럴리스트들은 사랑이 일종의 환상이고, 사랑이 "성의 실재 le réel du sexe가 자리 잡는 장식용 겉치레"이거나 "욕망과 성적 질투를 사랑의 핵심"

으로 여긴다.

이런 모럴리스트에게 사랑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욕망의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곧 욕망만이 존재하고 사랑은 단지 성적 욕망에 부착된 상상적 구성물일 뿐이다. 그는 이런 사랑에 대한 불신을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당신이 성적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시오. 그러면 된다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환상을 품을 필요는 없소. 그런 것은 모두 내팽개치고 어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시오!"(E 36-7/45)

그는 자유로운 두 개인 사이의 사랑을 계약으로 여기는 상업적이고 법률적인 관념도 비판한다. 이것은 서로 사랑한다고 선언하고, 관계의 동등성이나 상호이익이 동반되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바디우는 사랑이 이런 시도들을 벗어나서 둘의 관점에서 진리를 구축construction한다고 본다. 하나가 아닌 '둘'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경험할 때 세계는 무엇일까?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에서 검증되고 실행되고 체험된 세계란 무엇인가? 사랑은 성적 욕망과 시련들, 차이의 관점에서 시련을 겪는 것에 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E 26-7/32)

타인과의 만남이 있다. 만남은 전적으로 불투명한 상태로 존재하는 하나의 사건이고.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결과들을 통해서 현실성을 갖는다.(E 27-8/33) 곧 사랑은 단순한 생존 충동이나 이해관심을 벗어나서 탈중심적인 관점에서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다.(28/34)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여인의 어깨에 기댄 채, 황금빛 초원, 나무 그늘, 울타리 뒤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검은 코 양떼들, 바위 뒤로 서서히 모습을 감추는 태양 등 저녁 무렵의 평화를 보는 자는 바로 나이며. 그녀의 얼굴을 통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 내가 사랑

하는 여인이 나와 같은 세계를 보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동일성

이 세계에 속한다는 사실, 사랑은 바로 이 순간 동일한 하나의 차이가 된다는 역설을 내가 알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존재하고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리라는 사실을 약속한다." (E 28-9/34)

그녀와 나는 유일한 주체, 사랑의 주체로 구체화되고incorporés 사랑의 주체는 양자의

프리즘을 거쳐서 세계에 펼쳐진다. "사랑은 나의 개인적인 시선을 가득 채우는 것에 국한되는

대신에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탄생한 결과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사랑은 언제나 세계의 탄생을 목

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E 29/35)

---

1) 바디우의 저작들은 다음과 같은 약자로 표기하고 그 쪽수를 밝히는데 앞 쪽은 불어본, 뒤쪽은 우리말

번역본 쪽수이다.

C: Conditions (『조건들』, 이종영 옮김, 새물결)

D: 「La scène du Deux」, in De l'amour.

E: Éloge de l'amour (사랑 예찬, 조재룡 옮김, 길).

---

* 둘의 무대

사랑에 관한 어떤 사고에서 출발하면 사랑을 재발명할 수 있는가?

각자의 경험에 부합하는 두 지점에서 출발해서 사랑에 관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먼

저 사랑은 두 사람 각자의 무한한 주체성을 바탕으로 두 사람 간의 단순한 차이를 구성하는 분리나 離接disjonction2)을 다룬다. 이런 분리는 성적 차이에 바탕을 둔다. 곧 사랑에서 분리, 차이의 일차적 요소인 '둘Deux'을 갖는다. 그래서 사랑은 이 둘과 교섭한다 traiter. (E 31-2/39-40)

그리고 사랑이 분리disjonction를 다루므로 이 둘인 어떤 것이 무대에 등장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할 때, 사랑은 불확실하거나 우발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사랑은 이런 만남에서 시작된다. 바디우는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이런 만남에 사건 événement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사물들의 직접적인 법칙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것에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E 32/40)

이런 출발점의 예들을 문학과 예술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둘'을 강조하는 작품들에서 연인이 동일한 사회 계층이나 동일 집단, 파벌, 국가에 속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연인이 대립된 세계에 속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런 분리/이접disjonction의 대표적인 알레고리이다. 강력한 이원성과 극단적인 분리를 가로질러 사랑의 대각선을 교차시킨다.

두 차이들의 만남은 하나의 사건, 우발적이고도 놀라운 것, "사랑의 놀라움들surprises de l'amour"이다. 이런 사건이 사랑에서 근본적인 첫 지점le premier point이다. 이런 놀라움으로 세계에 대한 경험인 한 과정이 풀려나간다. 사랑은 두 개인의 단순한 만남이나 폐쇄된 관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구축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둘'의 관점에서 진행된다. 이것이 "둘의 무대, 또는 둘이 펼치는 무대La scène du Deux"이다. 바디우는 (사랑의 시작뿐만 아니라) 사랑의 지속도 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32-3/40-1)

그는 사랑을 통합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므로 급진적이고 낭만적인 사랑 개념을 거부한다. 그런 개념은 강한 예술적 매력이 있지만 실존적 위험을 내포한다. 사랑은 세계의 법

칙들에 의해서는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 무엇도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서로 만나는 순간, 서로 만나는 것이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E 34/42-3)

사랑에 관한 사고에서 수수께끼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황홀함에 관한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작되는 순간의 황홀함이 존재하지만, 사랑은 지속적인 구축이어야 한다. 사랑은 끈기 있게 이어지는 일종의 모험이다. 곧 사랑에는 모험적인 측면이 필요하지만 끈기를 필요로 한다. 최초의 장애물, 최초의 심각한 대립, 최초의 권태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참된 사랑은 공간과 세계와 시간이 사랑에 부과하는 장애물들을 지속적으로, 때로는 매몰차게 극복하는 그런 것일 것이다."(E 35/43)

기적적인 만남의 순간은 사랑의 영원성을 약속한다. 하지만 바디우는 덜 기적적이면서 moins miraculeuse 더 힘들여 노력하는plus laborieuse 영원성의 개념, 차례대로 끈기 있게 이루어지는 시간적 영원성, 둘의 경험의 구축을 제안한다. (E 69-70/90) 그는 만남의 기적을 인정하지만 만남을 고립시키거나 매 지점에서 구축된 진리의 미래로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면 만남의 기적은 초현실주의 시학에만 속할 뿐이라고 본다. (E 69/90)

지속durée은 사랑이 유지되고 서로가 항상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랑은 삶에서 지속되는 다른 방식을 고안한다inventer. 각자라는 존재는 사랑의 시련에서 새로운 시간성과 마주한다. 사랑은 "지속하려는 강한 욕망"이지만, 이것에 미지의 것을 지속시키려는 욕망을 더해야 한다. 사랑은 삶을 재발명함réinvention이다. 사랑을 재 발명하는 것은 이런 재발명을 재발명함réinventer cette réinvention이다.(E 36/44)

"당신을 사랑해je t'aime"라는 선언은 만남이라는 사건을 확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행위, 타인을 위해서 옷을 벗는 행위, 알몸이 되는 행위, 태고의 몸짓을 완수하는 행위, 부끄러움을 모두 던져버리는

행위, 소리 지르는 행위처럼 몸과 결부된 장면으로 들어서는 것들은 사랑에 내맡김 abandon의 증거로서 가치를 지닌다."(E 37/46)3)

(우정과 달리) 사랑은 타인의 존재의 총체성에 관련되며, 육체의 내맡김은 이런 총체성의 물질적 상징이기도 하다. (E 37/46-7) 이것이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의 선언에서 선언된 사랑의 요소에서 욕망의 효과들을 산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욕망이 아니다. 사랑은 자신의 증거로 욕망을 감싸고자 한다. 두 몸이 취하는 의례는 말의 물질적 담보이고, 삶의 재 발명에 대한 약속이 육체의 밀착을 통해서 보호되리라고 여긴다. "연인들은 가장 격렬한 섹스에서조차도, 몸이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증거 위에 평화가 내려앉을 때, 잠에서 깨어난 아침에, 마치 두 육신의 수호천사처럼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E 38/47) 바디우는 이런 점 때문에 사랑이 (사랑의 상실에 관심을 갖는 이데올로그라면 몰라도) 누구에게도 단순한 성적 욕망의 위장술이나 종족 재생산을 위한 뒤얽히고 괴물 같은 술책일 수 없다고 본다.

---

2) 논리학에서 選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A '또는' B(A∨B)처럼 두 진술을 '또는'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우정은 육체적인 증거를 찾지 않으며 육체의 향유에 따른 공명이 없다. 우정은 가장 이지적인 감정,열정을 불신하는 철학자들이 선호하는 감정이다

---

* 사랑의 진리

사랑은 어떤 점에서 진리의 절차procédure de vérité인가? 그것은 진리가 구축되는

경험이고, '둘'에 관한 진리, 차이의 진리이다. 곧 사랑은 진리 경험이다.(E 39/51) 사랑은 시련을 받아들이고 지속을 약속하고 차이에서 비롯된 세계의 경험을 수용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차이에 관한 새로운 진리를 생산한다. (E 39-40/52)

사랑 이야기가 우리를 사로잡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 까닭은 무엇인가? 사랑에 보편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은 하나가 아닌 둘이 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진리 경험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진리를 사랑한다."(E 40/ 52-3)

바디우는 사랑의 선언에 주목한다. 사랑에 필수적인 선언인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행위는 왜 중요한가?

이는 선언을 통해서 사건의 구조에 등재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만남이라는 절대적으로 우발적이고 우연한 특성에서 시작된다. "사랑과 우연의 놀이"는 불가피하고, 우연은 특정한 순간에 고정되어야 한다. "우연이 지속성을 출발시켜야 한다."(E 41/53)

그러나 순수한 우연이 어떻게 진리를 구축하는 지지대가 될 수 있는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것들과 연결된 것이 어떻게 짝지어지고 혼합된 두 삶의 온전한 의미가 되는가? 단순한 만남에서 어떻게 "우리가 둘이라고 해독되는 단일한 세계의 역설"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E 41/53-4)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비한 물음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진부한 사랑의 사실들에서 왜 진리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김 부장과 이 대리가 사랑에 빠지고, 이 사람과 저 친구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흔한 사실들에 왜 진리의 이름표를 붙이려고 하는가?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미시적인 삶의 근본 사건은 완고하게 지속될 때 보편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E 41-2/54)

사랑을 선언함으로써 '만남-사건'에서 진리 구축이 시작되고, 만남의 우연이 시작이라는 형식으로 고정된다. 이렇게 시작된 것은 지속되고, 더 이상 처음 시작되던 때처럼 우

연적이고 우발적이지 않게 된다. 그것은 필연처럼 나타나는 세계의 경험과 새로움 으로 가득 찬다. (E 42/55)

우연이 고정되어서 절대적인 우연이 운명이라는 겉모습을 취한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선언은 우연에서 운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이런 사랑 선언은 위태로우며 긴장감이 넘친다. 사랑 선언은 단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길고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선언되고 다시 선언되며, 그런 후에도 여전히 다시 선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E 43/55)

이처럼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사랑 선언은 우연을 고정시키는 순간인데, 만약 이런 "너를 사랑해"가 섹스를 위한 술책—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일까? (E 43/55-6) "너를 사랑해"는 하나의 우연에서 그와 다른 것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우연으로부터 지속, 끈기, 약속, 충실성을 이끌어내겠다고. 이때 충실성은 우연한 하나의 만남에서 그것이 필연적이었던 것만큼 견고한 구축으로 이행함을 뜻한다. (E 43/56)

이런 충실성은 "다른 누군가와 섹스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약속보다 더 두드러진 의미를 담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해"는 어떤 특별한 공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약속, 만남이 우연성에서 벗어나도록 지속성을 구축하는 약속이다. (말라르메가 시를 "낱말에 의한 낱말로 극복된 우연"이라고 본 것처럼) 사랑에서 충실성은 끈기 있는 승리를 가리킨다. "지속성의 고안l'invention d'une durée"에서, "한 세계의 탄생"에서, 하루하루가 뒤를 잇는 "극복된 만남의 우연le hasard de la rencontre vaincu"을 가리킨다.(E 44/57)

왜 사람들은 "널 영원히toujours 사랑할 거야."라고 자주 말하는가? 사랑한다는 말이 "항상toujours"을 의미한다면 "너를 언제나pour toujours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을 영원 속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런 우연을 고정시킴은 영원을 통고함annonce d'éternité이다. 모든 사랑은 영원을 선언한다.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이 영원을

시간상에 기록하는 것이다. 영원의 선언은 시간 안에서 실현되고 전개된다. (시간 속에서 이 영원은 내리막길을 가기도 하므로 사랑은 강렬한 감정일 수 있다) (E 45-6/58-9)

이처럼 사랑은 순간에 일어난 우연에서 시작되어서 영원을 제안하는 드문 경험이다. 영원을 말하게 하는 "항상"에서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고, 그 지속성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잘 아는가? "항상"이 지향하는 "영원히"는 삶이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바디우는 이렇게 나타나는 사랑의 행복과 함께 혁명적 행동에 참여할 때 느끼는 정치적 열정, 예술작품이 주는 기쁨, 학문적 깨달음에서 느끼는 초자연적인 희열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본다.(E 46/59-60)

이상의 내용을 좀더 형식적인 용어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고 사랑의 진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살펴보자. 사랑은 어떤 점에서 '둘'의 확립이고. 사랑은 어떻게 진리를 산출하며, 이런 진리는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에 바탕을 두는가?

* 남성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

바디우는 사랑에서 출발해서 둘의 존재를 연역한다. 이는 사랑의 진리를 긍정하기 위한 예비 절차이다.

그는 사랑에 대한 공리를 이루는 4가지 테제를 제시한다.

1) 경험에 대한 두 입장이 있다.

그는 남성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을 구별한다.

2) 두 입장은 전적으로 분리된다disjointes.

남성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 사이에는 어떤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세 번째 입장은 없다.

그는 분리의 테제를 통해서 남성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은 단지 사후에 확립될 뿐이고

사랑이 이 두 입장을 개별화한다고 본다. 그런데 두 입장의 분리는 내부에서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앎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분리에 대한 지식을 말하려면 제 3의 입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3) 테제가 이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제 3의 입장이 없이 분리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분리된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C 257-8/341-2)

바디우는 이런 분리 테제를 제시한 후에 분리를 통합하는 함수를 설정한다.

4) 단일한 인류une seule humanité가 있다.

이 인류는 관념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인류개념과 다르다. 바디우는 진리 철학에 따라서 인류 개념을 구성한다. 그것은 진리 절차를 지탱하는 것으로서의 인류이다. 인류는 (해방의) 정치, (개념적인) 과학, (창조적인) 예술, (감정과 성의 혼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랑이 있는 한에서만 입증된다.

진리 절차들은 인류라는 기호 안에서만 가능하다. 바디우는 이 함수를 H(x)로 표기한다. x는 적어도 하나의 (진리의) 유적 절차une procédure générique 상에서 주체로서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활성화된activé 주체 x는 인류 함수가 실존함을 입증한다.(C 259/343) 주체의 실존을 통해서 입증되는 인류 함수는 진리의 보편성을 지시한다. 이 테제를 앞의 것들과 연결시키면,

분리되어 있는 두 입장을 관통하는 것이 진리이다. 진리를 통해서 다른 입장에 속한 x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서 인류로서 통합된다. 진리는 (각자의) 입장을 초월하는 매개이다. 제 3의 입장이 없다면 성의 분리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가 바깥에서 들어와야 한다. 이 분리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야supplémenter 하는데 그것이 만남이라는 사건이다. 만남의 사건은 사랑의 절차를 끌어오는 계기이다. 이 만남이라는 사건에서 참된 '둘'을 도래하게 하는 진리가 출발한다.

그렇지만 이 둘은 두 입장을 하나로 셈하는 것이 아니다. 분리된 둘, 주어져 있는 둘이다. 분리된 둘은 전체적인 분리, 제 3의 입장이 없는 분리이다. "두 입장은 둘로 셈해질

수 없다."((261-2/346-7) 사랑은 셋을 모르기 때문에 결코 둘로 셈해지지 않는다. (서용순, 2007a 225)

바디우는 이런 셈의 불가능성 때문에 첫 번째 테제를 수정한다.

1-1) 하나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의 입장이 있다. (C 262/347)

둘을 이루지 않는 '하나'와 '하나'가 있다. 이 수정된 테제는 전적인 분리를 표현한다.

완전한 분리 상태에서 두 입장은 서로 식별할 수 없다. 이 두 입장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둘은 철저하게 분리된 둘이고 그런 둘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는다. (C 262/347)

바디우는 사랑을 둘 자체의 도래l'avenement로 보고 이것을 '둘의 무대'로 정식화한다. 둘을 가정하는 이런 사건은 상황에 우연적으로 덧붙여진 것supplément hasadeux이고, 이것이 바로 '만남rencontre'이다.

만남에서 비롯된 둘은 사랑이 그것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에만 갇혀 있지 않는다. "둘은 통로이자 축을 이루는 지점이고 첫 번째 수적인 성격이다."둘은 최초로 주어진 유아론적인 하나와 존재들과 경험의 무한 사이의 길을 나아간다. "사랑의 둘은 일반적인 타자성에 대한 우연적 성찰이다. 사랑의 둘은 코기토의 하나를 중단시키거나 침입하고, 그 때문에 자기에게 만족할 수 없고 존재의 한계 없는 다수multiple sans limite de l'Être를 향해 열린다."(C 358/475)4)

---

4) 사랑의 둘은 감각적인 것을 도래하게 한다. 존재의 회색 암흑만 있는 곳에서 둘의 진리 효과로 세계의 감각적 굴절flexion sensible이 세워진다. "감각적인 것과 무한은 동일"하다.

바디우는 하나와 무한이 정합적인 존재론적 테제라는 점이 『어떻게Comment』에서 공리로 제시된다고본다. 어둠 속을 기어 다니는 주인공은 말한다.

"명백히 말하는 게 좋겠다. 나는 혼자이고 더 이상 문제가 없거나 우리는 무한수이고 마찬가지로

더 이상 문제가 없거나 이다."(C 359/475-6)

하나와 무한의 테제를 한꺼번에 타당시하는 이런 추상적 공리에 대해서 사랑의 둘은 감각적인 관점을 취

한다. "사랑은 아름다움, 뉘앙스, 색을 전한다. 사랑은 또 다른 야상곡, 두 번째 야상곡이라고 할 수있는 것을 전한다. 그것은 존재의 회색 암흑의 야상곡이 아니라 살랑거리는 밤, 잎들과 초목들의 밤,

---

* 참된 둘과 인류 함수

분리된 둘의 만남인 '사랑의 사건'은 참된 둘을 도래하게 한다. 이런 우발적인 사건은

하나의 선언, "사랑한다"는 선언으로 통해서 고정되고 공백을 호출한다. 그 공백은 둘의

분리라는 공백이다. 공백으로서의 둘은 사건과 함께 도래한다. 사건적 언표는 '하나'를 파

괴하고 '둘'을 상황 속에 성립시킨다. 분리를 넘어서 분리의 진리로 나아간다. 둘의 성립

에서 "너를 사랑한다"는 언표는 사랑을 상황 속에 끌어들인다. 사랑은 최초의 명명에 대

한 다함이 없는interminable 충실성이다.(C 263/349)

"너를 사랑한다"는 첫 번째 언명에 대한 지속적인 충실성(비록 결별에 이르더라도)이

둘의 만남이라는 사랑의 사건을 무한한 과정에 연결시킨다. 이제 나와 너라는 둘은 비로

소 상황 속에서 '둘'로 성립되고 무한으로 나아간다. 사랑 덕분에 분리의 존재는 상황의

분리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연인들에게 유일한 상황이고 분리는 이 상황의 법칙이

된다.(C 264/349-350)

두 입장을 관통하는 인류 함수 H(x)의 효과는 단일하다. 이는 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제 둘의 진리는 상황의 통일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분리에 의해서

사고된 사랑의 진리는 하나로서의 다수multiple-un에 의해서 성립된다. (C 263-4/ 348-

50; 서용순, 2007 a 226)

이런 사랑의 사건으로서의 둘의 출현은 결코 사랑의 상부구조적 관점에 포섭되지 않는다. 사랑은 욕망과 이질적이다. 바디우는 사랑이 없는 성적 행위는 "엄밀한 의미의 자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욕망의 성행위는 "한 입장 내부에서만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사랑만이 성을 둘의 형상으로 드러낸다."(C 266/352) 사랑의 진리는 엄격하게 분리된 '둘'의 진리이다. (그렇지만 둘의 진리는 '하나'이다.) 둘의 만남에서 사랑의 사건의 무한한 상황은 하나의 진리만을 표현한다. (분리를 전제하는) 사랑의 상황은 둘에게 유일한 것이다.

사랑의 사건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사랑은 '둘'을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사랑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가?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배우게 하는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랑은 둘을 하나로 셈하지 않고 둘을 확립하고 둘의 무대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의 무대에서 각자는 다른 성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 바디우는 사랑을 "둘의 관점에서 행하는 세계에 대한 조사enquête"라고 한다. (C 268/355) 이런 조사를 통해서 사랑은 무엇을 알게 하는가?5) 사랑의 경우에 진리에 대한 지식은 성별화된 분리에 대한 지식이고 사랑은 이런 지식을 강제한다.(C 268-9/355-6)

그런데 사랑에 대한 남성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남성 입장은 분리의 공백을 고정시키는 둘의 분할, 둘-사이entre-deux를 지지한다. 남성이 확인하는 언표는 우리는 하나가 아닌 둘이었다"이다. 여성 입장은 둘이 방랑 속에서 지속되는 것을 지지한다.

여성의 언표는 "우리는 둘이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있지도 않았다"이다. 바디우는 여성의 언표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겨누는 존재론적 언표로 본다. 남성의 언표는 둘을 가정함으로써 수의 변화와 '하나'의 고통스러운 난입을 겨누는 점에서 (존재론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다.(C 269/356-7)

바디우는 사랑을 통해서 둘의 입장을 분리하는데 그 언표들은 충돌한다. 곧 논리적 언

표와 존재론적 언표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두 언표는 모두 '둘'을 드러낸다. 바디우는 분리된 입장과 그 입장들을 가로지르는 진리가 둘의 사건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논리적 담론이라고 본다.

사랑의 사고가 인류 함수 H(x)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정리하자. 인류 함수 H(x)는 인류를 표시한다. 이것은 과학, 정치, 예술, 사랑이라는 진리의 네 유형의 "잠재적인 합성 composition virtuelle"을 표현하는 함수이다. H(x)는 진리를 통해서만 성립한다. 분리된 입장들은 이 함수에 대해서도 분리되어 있고 이런 분리는 결정적이다. "남성의 입장에서 각 절차의 유형은 다른 절차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자체로 함수 H(x)에 가치를 부여한다." 곧 남성에게 "각 진리의 유형은 다른 진리의 유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그런 은유는 각각의 유형에서 인류 H를 내재적으로 긍정한다."(C 271-2/359-60)

여성의 입장은 다르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 합성은 사랑이 4가지 유형을 하나로 묶는데, 인류는 이런 조건에서만 존재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랑 없이는' 인류가 성립할 수 없다. "인류 함수 H(x)가 가치를 갖는 것은 사랑의 유적générique 절차가 존재하는 한에서이다."(C 270-2/358-60) 여성의 입장은 사랑을 축으로 나머지 진리의 유형을 감싸는 것이다. 사랑은 여성에게 인류를 성립시키는 유일한 절차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파악된 인류, "인류의 여성적 표상은 전체적인 지각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실패할 때 비 인류로 가닿는다."(C 272/360) 바디우는 보편성은 남성의 입장에서 주어지지 않으며. 보편성에 이르는 것, 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성립시키는 보편성을 엮는 것은 여성의 입장이라고 본다.

이때 그가 주목할 것은 (누가 보편성의 입장을 지니는가 보다는) 그 보편성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 곧 모든 진리 유형들을 인류 함수 H(x) 안에서 하나로 묶는 분리의 진리인 사랑이다. 여성은 인류 함수 H(x)의 보편성을 보증하기를 원하고, 여성에게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여성의 입장은 H(x)를 긍정한다. 여성의 입장에서만 모든

x에 대해서 H(x)가 성립한다.(C 273/361) 곧 모든 x(주체)는 진리의 절차를 지탱하고 인

류를 성립시킨다.

별들과 물의 밤의 야상곡이다. 만남과 노력의 가장 엄격한 조건들에서 사랑의 둘은 어둠을 둘로 가른

다. 한편으로는 존재의 회색 암흑과 다른 한편으로는 감각적인 것의 무한하게 다양한 암흑으로." (C

359/476)

사랑은 기원적 일자로 하여금 동일성의 고문을 유지하도록 하는 회색 암흑의 위협에서도 다수를 허용한

다. (C 359-361/476-479) 바디우는 사랑의 둘에서 유아론적 하나가 세계의 무한한 다수성으로 옮아

가는 것, 존재의 회색 암흑이 갈라지는 예들을 든다.

5) 모든 사건은 강제forçage와 연관된다. 진리가 출현했을 때 이 무한한 진리는 결코 완전한 방식으로

현시되지 않는다. 진리는 사후에 (진리에 대해서 선취된) 지식으로 강제된다.

---

*절뚝거리며 함께 걷기

바디우는 사랑을 둘의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이중적 기능의 지속적인 실행"(D 187)이

라고 본다. 그는 사랑의 과정이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둘의

무대'와 성적인 사랑이 결코 조화로운 과정이 아님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랑은

그런 어려움과 함께 지속된다. 불협화음과 다툼을 겪으면서도 사랑은 비틀거리면서 나름

대로 걸어간다. 이런 과정을 다리절기boiterie라고 부른다. 비-관계가 내포하는 이중의 기능은 사랑을 절름발이로 만든다. 그는 이것을 보충suppléance으로 여긴다. 다리절기는 진행marche이면서 동시에 진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D 187) 사랑에 완전한 걸음이란 없다. 다리를 절면서 걷는 절름발이의 걸음. 사랑은 (황홀한) 출발점에서부터 모든 역경을 연인 앞에 던진다. 연인들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번민에 빠지고 그 즐거움에 괴로워하고, 희열만큼이나 큰 고통에 몸부림친다. 사랑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위기이다. 순조로운 사랑은 없다. 모든 사랑은 위기의 지속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길이가 다른 두 다리를 끌며 힘겹게 걸음을 옮긴다. (서용순, 2008, 98)

바디우는 사랑을 속류화하거나 신비화하는 시도를 거부한다. 이런 시도들은 이중의 기능 가운데 하나에 사랑을 떠넘긴다. 그 하나는 저속한 사랑으로서 대상성만이 지배적인 성적 연애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에서 벗어난 숭고한 사랑(플라톤적 사랑)이다. 전자는 다리 절기를 배제하므로 잘 진행될 수 있지만 어떠한 둘의 무대도 세우지 않는 구조의 활성화activation de la structure이고, 후자는 어떠한 걸음의 질서l'ordre du marche도 지니지 않는 분리 그 자체에서 상상적 개별화만을 고려한다. 숭고한 포기라는 예술적 표상은 이런 주제와 관련된다 (D 187). 이 둘은 모두 보충에 실패한 사랑이다. "사랑의 본질은 저속하지도 숭고하지도 않다" 그래서 사랑은 절뚝거리는 걸음을 감내하는 노고의 질서l'ordre du labeur에 속한다. (D 188)

노고의 질서는 내적인 대상에 몰입함과 외적인 확장을 반복적으로 교대하는 과정이다. 사랑은 한편으로는 내적인 대상을 향한다. 이런 내적 대상을 지향함은 둘을 지우고 대상에 대한 오해를 재생산하고 성적인 비-관계와 끊임없이 마주친다. 또 한편으로 사랑은 외적으로 확장된다. 사랑을 통해서 참된 둘의 무대를 세울 수 있다. 둘의 만남은 두 입장을 多의 세계로 이끌고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다자를 향해서 열림이 둘의 무대가 만드는 사랑의 고유한 실천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사랑은 성적

정사를 제외하곤 고유한 무대라곤 갖지 않는다." (D 188) 대상을 둘러싸고 몰입하면서 확장하는 사랑의 운동은 절름발이의 노고에 빗댈 만하다. (서용순, 2008, 99)

사랑의 이중적 기능 가운데 어느 한 쪽도 제거할 수 없다. 만남은 둘을 사랑의 주체로 호출하면서 그들을 다자로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다자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타자성을 성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같은 곳) 둘은 최초의 다자로서 무한이 이로부터 열린다. 사랑의 둘은 자신으로 만족할 수 없고 존재의 제한 없는 다자multiple sans limite de l'Être를 향해 열린다. (C 358/474)

* 방랑과 이야기로 직조되는 사랑

바디우는 베케트의 작품들을 사랑의 언어, 사랑의 사고로 재구성한다.

그는 늙은 부부의 얘기를 다루는 「오! 아름다운 날들이여!」에서 여성이 두드러진다고 본다. 모든 것이 황량한 상태에서 바닥에 깊이 묻혀있는 여성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들이었던가!"라고 외친다. 사랑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기 존재를 파국적인 현상으로en apparence catastrophe 구성하는 강력하고puisssant 불변적인invariant 요소이다. 사랑은 이런 파국 뒤에 숨겨진 힘이다.

베케트는 「이제 그만Assez」에서 산과 사막이 혼재하는 배경에서 늙은 부부의 방황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야기는 사랑과 부부의 지속성에 관한 내용으로 전개되는데, 육체의 황폐함, 실존의 단조로움, 날로 어려워지는 섹스 등을 드러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빛나는 사랑하는 능력의 체제régime de la puissance와 사랑을 구축하도록 지속시키는 완고함의 체제régime de l'obstination를 자리매김한다. (E 73-4/92)6)

바디우는 베케트가 사랑의 사고를 제시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사랑에 대한 남성의 입장은 명령과 고정성을 결합시킨 것이고, 여성의 입장은 방랑과 이야기를 결합시킨 것이

다. (Badiou, 1995, 55-60) 그는 베케트가 '두 성에 대한 이념'을 제시한다고 보는데, 이 가운데 여성적 입장에 배분된 이념이 다자를 향한 열림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디우의 해석을 살펴보자. 그는 베케트의 텍스트들에 나타난 네 함수들을 정리한다. (C 361-2/479-480)

첫 번째 함수는 방랑errance, 여행이다. 암흑 속의 여행, 사랑의 충실한 궤도의 무한한 우연을 제시하는 여행, 만남의 효과에 드러난 세계를 횡단하는 여행.『이제 그만』에서 (나이든) 연인들은 언덕들, 꽃들 속을 끊임없이 산책한다. 이것은 둘의 지속을 확립하는 것이고 우연의 명령으로 시간을 정초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함수는 부동성이다. 이것은 최초의 명명, 만남-사건의 명명으로 고정된 지점을 확보한다. 이런 부동성은 예를 들어서 갈대 사이에 걸린 보트의 움직이지 않음, 타자의 눈동자에 파고드는 시선들의 흔들리지 않음 같은 것이다.

세 번째 함수는 명령impératif의 함수이다. 분리된 상태에서도 언제나toujours 계속할 것. 그래서 분리 자체를 계속함의 양식으로 규정한다. 이런 사랑하는 노력un travail de l'amour에 대한 내적 보상이 행복이다.(E 69/90)

네 번째 함수는 이야기의 함수로서, 둘의 관점에서 세계의 잠재적 무한을 전하는 것이고, 무한의 믿을 수 없는 펼쳐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베케트가 "축복받은 푸르른 시간le temps béni du bleu"이라고 한 것이고, 방랑을 동반하는 문서고archivage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은 방랑, 부동성, 명령, 이야기의 함수들로 각각의 개별적인 지속을 짜나간다. 바디우는 베케트가 이런 함수를 조합해서 (경험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성별화sexuation와 독립된) 둘의 남성적 극과 여성적 극을 규정한다고 본다.

남성적 극은 부동성의 함수와 명령의 함수를 조합한 것이다. '남성'은 정초자fondateur의 이름으로 계속continuation의 법칙을 규정하면서 사랑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극은 이야기 함수를 결여하기 때문에 벙어리 상태이다. 사랑에서 남성은 이름의 말없는 수호자이다. 방랑의 함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랑하는 남자의 극은 사랑을 증명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 암흑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사랑에 대한 강한 추상적 확신을 지닌다.(C 362/481)

여성적 극은 방랑과 이야기를 조합한다. 이 극은 이름의 고정성과 일치하지 않으며, 세계에서 이름이 무한하게 펼쳐지는 것이나 끝없는 영광의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여성적 극은 유일한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력에 대해서 부단하게 조사enquête하고 검증한다. 사랑에서 여성은 이름보다는 의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보호는 조사와 떠도는 우연le hasard errant을 내포하는데 동시에 그런 우연은 이야기에서 영속적으로 제자리를 벗어남perpétuelle déposition이다. (C 363/481)

사랑은 이런 양극성에 대한 규정으로 현존하고, 이 양극성은 네 기능을 개별적으로 분배한다. "사랑만이 남성(명령의 부동성, 이름의 수호)과 여성(진리의 방랑, 이름이 말로 귀결됨)이 있음을 확증한다. 사랑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성의 둘le Deux des sexes을 증명하지 못한다. 곧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었을 뿐, 둘은 없었을 것이다. 남성 '그리고' 여성은 없었을 것이

다."(C 363/481-2)

이런 점들은 유적 절차들의 數的 性格과 관련된다.

㉮ 사랑에서 먼저 주어지는 것은 유아론적 하나이다. (코기토와 존재의 회색 암흑이 무한한 말의 되풀이 속에서 대면하는 것, 몸과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 그 다음에 둘이 주어지는데, 이 둘은 만남의 사건과 명명의 계산될 수 없는 시poème로 도래한다. ㉰ 마지막으로 둘이 관통하면서 펼치는 감각적인 것의 무한이 있다. 그 속에서 둘 자체의 진리가 조금씩 펼쳐진다.

이러한 하나, 둘, 무한의 수적 성격은 사랑의 절차에만 고유한 것이다. 이런 수적 성격 --하나, 둘, 무한--이 베케트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의 장소이다. 행복은 사랑의 절차를 개별화한다. 오직 사랑에만 행복이 있는데, 이는 그런 진리 유형에 대한 보상이다. "예술에는 쾌락. 과학에는 기쁨, 정치에는 열정이 있고, 사랑에는 행복이 있다."(C 363/482)

이것들은 존재의 공백이 도래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것이 주체에서 수용되면서 행복이 가능해진다. 행복의 고유함은 존재의 공백이 둘-사이에서, 둘의 실질적 성격을 이루는 것에서 둘의 분리와 성적 차이로 포착된다. 기존의 사고처럼 행복은 하나가 되는 것, 융합의 신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만이 현실화할 수 있는 차이의 진리, 성적 차이의 진리의 주체적 목록"이다. (C 364/482-3)

바디우는 행복의 핵심과 관련해서 성별화가 행복의 장소le site이자 몫l'enjeu이라고 본다. 행복과 관련해서 남성은 분리, 둘-사이를 맹목적으로 수호한다. 『이제 그만Assez』의 여주인공은 말한다. "우리는 갈라져 있었지. 그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었지." 남성적 극은 분열scission의 욕망을 지탱한다. 이 욕망은 둘-사이의 갈라짐에서 둘을 표명하려는 욕망이다. 남성의 욕망은 공백에 촉발되거나 공백에 의해서 촉발된다. 남성은 "둘의 무le rien du Deux"를 욕망한다.

이와 달리 여성적 극은 "오직 둘만rien que le Deux"을 욕망한다. 둘이 둘로서 지속되는 무한한 끈기를 욕망한다. 이런 여성적 층위는 『이제 그만』의 끝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둘의 무에 대해서, 남성이 죽으러 떠났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지시되는, 둘을 내적으로 촉발하는 공백에 대해서 여성은 "오로지 둘만rien que le Deux"의 la 완강함, 끈질김을 대립시킨다.

"평온함의 이런 관념은 그가 가져다 준 것이다. 그가 없었다면 그런 평온함을 지닐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꽃들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지우려 한다. 더 이상 비도 내리지 않고, 더 이상 젖꼭

지도 없을 것이다. 단지 우리 둘만이rien que nous deux 꽃들 사이를 쏘다닐 것이다. 나의 시든 젖가슴이 그의 늙은 손을 느끼는 것은 이제 그만."(C 364/484)7)

바디우는 빛나는 베케트의 텍스트들에서 불행을 가로질러 행복을 산출하는 예들에 주목한다. "밝은 공백vide claire", "불행의 빛남la brillance du mahleur", "공백이 찾아오는 매우 짧은 힘겨운 시간très bref temps laborieusx d'un visitation du vide 속의 행복", "이 공백을 염원할 수 있는 시간"인 일 초.

이런 점에서 베케트의 예술은 삶의 불행, 보이는 것의 불행으로부터 참되게 공백을 촉발하는 행복bonheur d'une suscitation véridique du vide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만남의 측정할 수 없는 힘, 명명의 모험, 방랑과 고정성, 명령과 이야기의 조합을 밤의 분열 속에서 직조한다.

---

6) 베케트의 작품에서 사랑은 순수한 만남에서 비롯된다. 두 궤도의 우연이 사랑을 규정하는데 이 우연들에 앞서는 것이라곤 고독이 있을 뿐이다. 어떠한 둘도 만남에 앞서지 않는다. 성적 차이는 오로지 만남의 관점에서만, 사랑의 과정에서만 사고될 수 있다. (C 357/ 473-4)

만남은 '둘', 사랑의 기원적 능력puissance이다. 그것에 앞서는 것은 없으며 그것을 잴 척도도 없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감정의 능력이나 육체의 성적 능력, 욕망하는 능력에 의해서 측정될 수 없다. (C357/474) 따라서 사랑은 강렬한 감정의 흐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이고, 성적 능력의 크기로 사랑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랑을 욕망으로 대체할 수 없다.

베케트는 사랑을 감상성과 섹슈얼리티의 혼합으로 축소시키지 않는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건인 사랑은그런 것들을 초과하는 순수한 사건, 만남에 달려있다. 만남은 둘 자체의 토대를 이룬다. 만남이 만드는 사랑의 형상에서 둘이 솟아난다survient. 사랑은 낭만적인 관념이 주장하듯이 (선행하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융합도 용해도 아니다. "사랑은 둘을 둘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때로는 힘겨운laborieuse 조건이다."(C 358/474) 『말론 죽다Malone meurt』에서 맥만Macmann과 그를 간호하는 몰Moll의 만남에서, 이들의 사랑은 노인들이나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랑으로서 강렬한 서정성을 갖는다.

---

* ‘하나의 사고’인 사랑

바디우는 페소아Pessoa(포르투갈 시인)가 “사랑은 하나의 사고이다”라고 지적한 점에 주목한다. 보통 사랑은 육체이고 욕망이자 감정의 움직임이거나 이성과 사고가 아닌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사랑을 사고와 관련 짓고 진리 절차의 하나로 본다.

그는 그리스 이래 철학자들이 대중 앞에서 말해왔으므로 자신을 공개하는 철학의 구술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람들은 철학자가 현혹하고 유혹을 통해서 비개연적인 진리의 길로 이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바디우는 플라톤의『국가』5권에서 참된 철학자를 사랑과 관련해서 정의하는 부분을 참조한다. 그는 사랑에서 시작해야 하고, 유혹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진리의 이름으로 유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 78-9/100-1)

플라톤은 “어떤 이가 사랑한다면 일부를 사랑하고 다른 일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사랑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플라톤의 말을 바디우는 자신의 언어로 번역한다. “사랑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우리가 연인이라면 이 대상을 총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사랑의 실천적인 측면과 철학자의 정의 사이의 관계를, “사랑에 넋이 나간 젊은이라면, 페소아가 말한 “사랑이 하나의 사고”라는 것을 알아차릴 능력”이 있을 것이며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은 결코 철학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사랑의 찬가를 사랑하는 ‘너’에게 바친다.

“사랑하기는 온갖 고독을 넘어서 세계로부터 존재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든 것과 함께 포획되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나는 타자와 함께 하는 행복의 원천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나는 널 사랑해”는 내 존재를 위해서 네가 있는 그 원천이 이 세계에 있다는 것이 된다. 이

런 원천에 담겨 있는 물속에서 나는 우리의 기쁨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너의 기쁨을 본다.(...)8)"(E 87/113)

참고문헌

서용순 (2007a), 「철학과 정신분석: '둘'이라는 관건」,『한국 라깡과 현대 정신분석』

7) 행복은 남성과 여성에 무구별적indistinctment이다. 행복은 분리하는 공백이자, 그 공백을 드러내는결합conjonction이다. "행복으로서, 행복의 도면tracé으로서 공백은 둘의 무le rien du Deux 이고 '그리고et' 오로지 둘만le rien que le Deux이다. 공백이 공유하는 성별화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방랑하는 것이고, 명령이면서도 이야기이다."(C 364-5/484)8) 말라르메의 시에서처럼, "물결 속에서 벗은 채Dans l'onde toi devenu(e)/네 기쁨에 이르는 너를Tajubilation nue" 본다.

9권 1호.

_____ (2007b),「베케트라는 질문에 답하기」,『현대비평과 이론』, 14권 2호.

_____ (2008), 「비-관계의 관계로서의 사랑」, 『한국 라깡과 현대 정신분석』 10권 1호.

Badiou, A. (1992), Conditions (『조건들』, 이종영 옮김, 새물결) (C로 표기함), Seuil.

_____ (1995), Beckett: L'increvable désir, Hachette.

_____ (1999),「La scène du Deux」, in De l'amour(D로 표기함), Flammarion.

Badiou, A. & Truong, N. (2009), Éloge de l'amour(사랑 예찬, 조재룡 옮김, 길) (E로 표기함), Flammarion.

**참고자료

바디우는 성의 분리를 통해서 남성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고 본다. 「둘의 무대 La scène du Deux」에서 이런 분리를 형식적으로 고찰하면서 '비-관계의 형식들'을 제시한다. 그는 둘이 존재하는 형식을 제시하명서『조건들』에서 제시한 성 차이에 관한 테제에 보다 보편적인 형식을 부여한다.

그는 라깡이 제시한 '사랑은 성 관계의 부재에 대한 보충'이라는 주장을 재해석한다. 그는 라깡이 '존재 그 자체, 만남에서 그것에 가닿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지적으로 사랑이 사건의 질서에 속하는 것임을 밝힌다고 본다. 그는 성관계가 구조상에 부재하는 것이라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사건의 질서에 속한다고 본다. 사랑의 우연을 가리키는 만남은 '대상을 통해서 이끌리지만 동시에 대상을 넘어선다'. 사랑의 '주체는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존재 일부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D 177) "사랑한다"는 선언--사랑의 주체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애 담긴 대상에서 주체로의 전환이 주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사랑의 만남은 대상의 만남일 수 없다. 그것이 대상에 이끌리더라도 만남에서 주체의 존재는 결정적이다.

만남은 두 주체를 세운다. 물론 이때의 두 주체는 분리된 상태에 놓인 주체들이므로 결코 하나로 셈해질 수 없다.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둘이 둘로 셈해지는 실질적인 둘이 만드는 무대 절차이다. 둘은 합해지지도 않고 융합되지도 않는다. 사랑은 둘을 세움과 동시에 둘을 구성하는 것을 초과하는 절차이다 (D 178). 그는 남성과 여성의 입장이 융합될 수 없는 이접적disjonctive인 것이라고 본다.

(그는 남성 입장과 여성 입장을 성별화된 방식으로 관계 속에 분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순서관계에서 위계를 할당할 때 이 관계를 두 성에 할당할 수 없다. 형식화된 순서로

남성적 입장 H 와 여성적 입장 F를 표사할 수 없다. (H ≤ F 도 F ≤ H도 성립할 수 없다.) 결국 성적인 것과 결부된 관계에서 남성적 입장과 여성적 입장은 양립할 수 없다. (H ⊥ F) (D 182)

그는 분리ségrègative 테제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비-관계를 분리로 사고한다. (남성과 여성은 각자의 편에 머무를 뿐이고 접근 가능한 것도 비결정도 없다. 이미 결정된 각각의 성별화된 입장과 그것의 분리만 있다.) 남성적 입장과 여성적 입장에 모두 포함된다고 가정되는 항 t를 공백과 일치시킨다

[(t ≤ H) 그리고 (t ≤ F)] → t = 0) (D 182)

그런데 그는 비-관계를 이처럼 순수한 분리로만 사고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두 입장을 관련짓는 항 u 를 상정한다. (이 항은 0이나 공백이 아니다.) (D183) 그러면 관계맺지 않는 두 항 사이에 어떤 관계항을 설정할 수 있는가? 어떤 항이 둘 사이에 공유된다면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비-관계에 대한 인간주의적 humaniste 테제이다. 이것은 두 항을 인류에 소속시키는 입장에 노출되는 지점이다. 그는 이 항을 비결정된indéterminé 항으로 상정한다. u는 두 입장에 관계 맺지만 묘사할 수 없고 조합 불가능한 항으로서 원자적이다. 그 무엇도 이 항을 개별화할 수 없으며 어떤 것으로도 이 항을 조합할 수 없다. (D 183) 성별화된 두 입장은 그들의 비-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국한된 관계로 이끈다. (u는 공백이 아니지만 그것 자체와 관계 맺고 있는 것은 공백뿐이다.)

(u ≤ H 그리고 u ≤ F) → [t ≤ u) → t = 0]

이처럼 바디우는 비결정항인 u를 통해서 두 입장을 곧바로 인류로 통합하지 않으면서 그 조우 가능성을 비 결정된 교집합 여부를 살핀다. 비-관계는 전적인 분리도 아니고 결정 가능한 교집합을 통해서 개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국한된 관계만을 비-

관계 안에서 갖는다.

그는 플라톤의 관점을 비-관계에 대한 세 번째 입장으로 보고 비판한다.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제시하는 에로스의 신화는 상보적인 반쪽을 통해서 완전성을 추구하는 욕망을 이것은 일자를 향한 욕망이다. 이것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완전한 전체의 구성을 전재하고 분리된 동시에 보완적인 관계를 내포한다. 이런 보완 테제는 모든 t는 남성적 입장에 속하거나 여성적 입장에 속한다고 본다.

$(\forall t)\ t \leq H$ 또는 $t \leq F)$ (D 184)

이런 두 입장의 결합은 일자를 구성한다.

$(H \cup F = 1)$

바디우는 이런 보완테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입장의 만남을 총체성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성을 얻을 수 있지만 비-관계를 총체성 속에 해소시킬 뿐이다. 그래서 바디우는 성별화된 입장에서 벗어나는 비-전체의 항을 상정한다. 이 때문에 두 입장의 조합은 전체-일자로 나아가지 못한다. 곧 남성적 입장에서 속하지 않고 여성적 입장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항 t가 있다. 두 입장의 합집합은 일자-전체와 등치되지 않는다.

$(\exists t)$ [non $(t \leq F)$ 그리고 $(t \leq H)$]

$(H \cup F \neq 1)$ (D 184)

바디우는 공리적 테제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D 185).

1) 남성적 입장 H과 여성적 입장 F은 양립불가능하다. 또는 서로 관계 맺지 않는다.

$(H \perp F)$

$\neg(F \leq H)$ 그리고 $\neg(H \leq F)$

2) 그들은 공통항 u를 갖는다.

$(\exists u)[u \leq F$ 그리고 $u \leq H]$

3) 이 항은 비복합적이거나 원자적이다.

$(t \leq u) \rightarrow (t = 0)$

4) 남성적 입장 H 과 여성적 입장 F은 어떤 전체도 구성하지 않는다.

$(H \cup F \neq 1)$

이런 비-관계의 공리들은 탈결합된 두 입장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연결은 원자적인 것이다. 그것은 공통의 항인 u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이 항은 원자적이므로 조합으로서의 분석도 그 기입도 불가능하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사랑에서 만남은 이런 비-결정의 항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두 입장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u는 두 기능을 갖는다. '첫째는 욕망이 그 원인을 구하는 대상의 기능이고, 둘째는 세계에 대한 공동의 조사를 개시하는 둘이 셈해지는 지점의 기능이다.' (D 186) u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바디우는 u가 분석불가능하고 결정불가능한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u는 남성적 입장과 여성적 입장이라는 각각의 입장 속에 있다. 그들 사이에 공통의 '일자'가 움직이는 것은 이 u를 통해서이다. "남성적 입장과 여성적 입장은 그들의 공통적인 욕망의 원인인 u에 대한 오해 속에만 있을 뿐이다. 이 오해는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제거할 수 없다. 이는 u가 분석불가능하기 때문이다."(D 186)

이런 u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공통의 원자는 두 입장에서 내적으로 제거됨으로써 둘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만남의 둘이 대상의 초과excès로 나아감으로써 가능하다. 두 입장은 대상에 의해서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D 186). 그 결합의 이면에는 존재 자체가 자리 잡고 있고, 성별화된 입정이 엮는 '둘'은 그 존재를 따라서 구성된다. (라깡이 말한 '존재에의 접근'은 사랑의 만남이 대상의 지배를 넘어서 성별화된 존재 그 자체에 기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디우는 이런 "대상의 초과=존재에의 접근"을 비-관계의 형식화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처럼 원자 u의 확장과 제거라는 이중의 기능은 사랑의 과정을 지배한다. 그 두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사랑을 환원할 수 없다.

*바디우는 사랑을 통해서 파악한 여성의 입장이 보편적 정체성을 지탱한다고 본다. C 272; 서용순 2007b, 228-30) 라깡에게서 여성은 비-전체이다. 그는 지배적 뵤편성의 영역을 남성에게 할당하고 여성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바디우는 이런 지배적 보편성에서 벗어나는 다른 가능성을 진리를 지탱하는 인류함수 H(x) 함수에서 x는 능동적 주체로 활성화되는 한, x가 진리의 주체인 한, 인류의 함수가 실존한다고 주장한다. (C 259/343) '인간적인 인류'를 구성하는 것은 진리의 사고이고, 그 주체적 활성화이다. 이 가운데 사랑의 진리에 대해서는 남성적 입장과 여성적 입장이 분리되지만 이는 상황의 구조적 법칙과 관련된 분리일 뿐이다. 두 입장의 만남은 이 둘을 만나게 하고 분리는 절대적인 것으로 남지 않는다. 사랑의 진리는 성차이의 진리이다. 사랑은 이 둘을 하나로 만들지는 않지만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진리'를 만들고, 그 '하나의 진리'는 모든 입장을 가로지르고, 그 입장에서 벗어난다.(C 260/344) 바디우에게 중요한 것은 입장의 분리를 넘어서도록 하는 만남이라는 사건이다. 그 입장의 분리가 어떤 초월적인 일자나 (세번재 항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인 종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오로지 만남을 통해서 그 둘은 실질적인 둘로 정립된다. 만나지 않으면 둘은 없고, 하나와 다른 하나가 있을 뿐이다. 만남은 최초의 다자를 가능하게 하고 사랑의 만남은 무한한 다자의 세계로 확장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리절기'가 나타난다. 진리를 파악하고 종합하는 방식에서도 상처가 드러난다. 바디우는 남성적 입장이 진리의 각 절차를 각각으로 파악하여 그 자체로 인류함수 H(x)에 가치를 부여하는 데 반해서 여성적 입장에게 진리를 지탱하는 인류함수 H(x)가 가치를 갖는 것은 사랑이라는 유적 절차가 존재하는 한에서 이다.(서용순, 2007b228) 곧 여성적 입장은 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긍정한다. 여성적 입장은 사랑을 통해서 나머지 진리 절차들을 감싸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성립시킨다. 인류를 성립시키는 보편성은 여성에게 있다.9)

---

9) "라캉은 팔루스적 거세 함수 Φ(x)를 통하여 남성의 입장에서 보편성을 부여하고 그 보편성의 부정으로서 여성의 입장을 세운다. 이 보편성이 아무리 허구적이고 억압적이더라도 라캉에게 보편성은 남성에게 가닿아 있는 것이다. 여성은 그 보편성에 대한 반란이고 단지 가능한 감산(벗어남soustraction)만을 표시한다. 바디우는 이것을 뒤집어 여성이 보편성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서 동원된 것이 바로 인류 함수 H(x)이다. 남성의 입장인 거세 함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이 관계를 뒤집기 위해서는 하나가 아닌 둘이, 욕망이 아닌 사랑이, Φ(x)가 아닌 H(x)이 필요하다. 바디우가 잘 지적하듯 라캉은 여성을 비 전체로 간주하여 그 입장을 특징 양화기호/부정과 결합시켜서 표현한다. 결국 그에게 보편성을 나타내는 전칭양화기호는 남성의 몫이다. 바디우는 이 관계를 뒤집는다. 이 전복의 기제는 다른 아닌 긍정적인 것으로서의, 진리로서의 사랑이다. "사랑은 H(x)를 Φ(x)와 갈라놓으며 진리절차의 전체 범위 속에서 전칭양화기호를 여자들에게 돌려준다."(C 273/ 361-2; 서용순, 229-230